**이름**

장지명

* **블로그나 브런치,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 활동명과 아이디,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

97.poet\_jimyeoung https://instagram.com/97.poet\_jimyeoung?igshid=jk0kz6abbmel

* **제출 글 1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5zmeRwSR\_5\_달이 가려 밤이 보이지 않는다.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5zmeRwSR\_7\_달이 가려 밤이 보이지 않는다.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 잠 못 이루는 밤은 평소보다 깊어져 시간이 더욱 느리게 흐르기만 한다. 이 느린 시간 속에 멈춰버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밤과 그 속의 감정들을 감상하는 일이다. 옆 건물 간판에서 내 안의 감정까지 시선은 멀리 뻗을 수록 선명해지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둘수록 모호해진다. 불면의 이유도 그러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밤을 만든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시멘트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아스팔트

* **제출 글 2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5zmeRwSR\_16\_올해가 지나야 답장이 써질까 싶습니다.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5zmeRwSR\_18\_올해가 지나야 답장이 써질까 싶습니다.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유독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편지와 표정이 있다. 함께 하는 시간에 이야기가 보태질수록 편지 속에 눈물이 많아지는 법이다. 고마움으로 핀 이야기들이 다시 고마움으로 이어지려면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 많은 이야기 속에 나를 보태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답장이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잔디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작가인터뷰 - Q1.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인적사항 제외)**

술과 집안일을 좋아하는 작가 장지명입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2.**

글을 쓰지 않고는 못 살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작가인터뷰 - Q2.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항상 느끼고 있어요.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던 이유도 살고 싶어서였고 항상 우울한 시기에는 가장 가까이 있어 주는 것은 글이었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때도 글을 쓰고 있었어요. 혼자 영화관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방 안에 앉아 노래를 들을 때도, 돌아가는 세탁기 앞에 앉아서도. 문득 떠오는 시상에 시를 쓰고 있어요. 글 없이 살기에는 제가 우울함에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삶은 제게 순간순간에 저를 흔적으로 남기고 다시 곱씹어볼 수 있는 삶이기에 저는 앞으로도 쭉 글을 쓰고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 것도 결국 글이 언제나 제 삶에 있길 원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3**

당신에게 글이란?

* **작가인터뷰 - Q3.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단어로 말하면 '안경', '술', 문장으로 말하면 '글은 삶이 될 수 없지만 살아가기에 적당한 이유가 만들어 준다.' 이에요. 제 안에 존재하는 많은 감정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글은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줘요. 제가 말보다 글을 사랑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요. 말은 금방 사라지고 기억이 무뎌지는 순간부터 의미와 존재를 상실하게 돼요. 하지만, 글은 검은 활자가 훼손되지 않는 한 늘 머물러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는 깊어지고 진해져요. 글을 읽는 것은 제게 배움을 주고 글을 쓰는 것은 제게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글을 쓰며 얻은 새로운 생각과 감정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보탬이 되고 그런 것들로 다시 글을 쓰고 있어요.

* **작가인터뷰 - Q4. 맺음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

2020년에 남긴 제 흔적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제 글을 읽고 어떤 것들을 느꼈을지 알 수 없겠지만 무엇이든 제게는 모두 감사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해오고 있는 [지은]의 2020년이 당신의 2021년에 따뜻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